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주일에배 설교 음성서비스

Apple Podcasts 팟캐스트

Spotify 스포티파이

팟빵 오디오클럽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9월 3일(화)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 이사야 I

광림교회는 지난 여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며 호렙산 기도회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또한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통해 깊은 은혜의 바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었다.

이제 다가오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깨닫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 성경공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읽는 기쁨을 깨닫게 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이 변화되는 영적 훈련이다.

9월 3일 첫 강의를 시작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11월 26일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김정석 담임목사의 강의로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학기 과목은 이사야이며 주제는 “여호

와의 빛에 행하라”(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사 2:5)이다. 이사야 강의는 이번 학기와 내년 봄 학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회복,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서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왕 웃시야, 요담, 아has,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고, 이 왕들의 통치 시기는 나라의 정세가 불안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유다의 격변기였다.

이사야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자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메시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예언하며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전하고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번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서 광림의 성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깨달으며 실제 삶에서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일반과정과 통신과정으로 진행되며 일반과정은 본당과 지교회에서, 통신과정은 광림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트리니티 성경공부 신청은 8월 25일(주일) ~ 9월 10일(화)까지 각 교구 전도사를 통해 받고 있다.

강의 후에는 배운 내용을 복습해 과제를 제출해야 과목 이수가 인정되며, 이수자 선정 기준은 출석 70%와 과제물 30%가 반영된다. 매 강의 후에는 그 주에 암송할 성경 말씀이 주어지고, 성경 암송을 원하는 성도는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에게 신청하면 강의 시간에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암송하는 성도들에게 기념사진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트리니티 성경공부 시작 전 오전 10시부터는

각 선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속회지도자 교육을 진행하며 속장들이 속회에서 나눌 말씀을 배우게 된다.

풍성한 가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영어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English Bible Academy가 9월 1일 개강해 11월 17일까지 12주간 진행되며, 65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광림S.E.C(평생교육대학원)은 9월 5일 ~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소현수 기자



천국을 누리는 값진 인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마 13:44)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재산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도 수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현재의 삶도 포기해야 하고, 미래의 삶도 안정적이지 않다면, 이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감추어진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수고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44-46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날도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게 될 때 얻게 되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해하게 될 때, 현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단지 미래에 가게 될 어떤 한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세계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국은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저축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재물을 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사실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인간의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발견된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했습니다.

반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자 그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진주 장사는 오

랜 노력 끝에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영혼은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태도를 보입니다. 두 번 태어난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으며 악한 사람이 잘 사는 모순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세상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값진 보화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소유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소유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천국은 오히려 내가 소유한 것을 내어놓을 때 얻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들을 버리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거나 높은 위치를 얻고자 하지만, 천국은 이런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과시에는 겸손과 희생, 양보가 없습니다. 자아를 성취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다시 말해, 소유에 중독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

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생명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희생은 곧, 생명의 범칙입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내가 희생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국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감추어진 보화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두 사람은 전력투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희생 가운데 부활을 체험하며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누리는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22차 세계감리교대회 (World Methodist Conference)

광림콰이어 개회예배 특별 게스트로 초청, 평화상 시상식·한국 평화의 밤 공연



8년 만에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개최
22차 세계감리교대회가 8월 14일(수) ~ 18일(주일)까지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에 있는 고티아 타워스(Gothia Towers)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On the Move>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계감리교대회는 1881년 영국 웨슬리채플(Wesley's Chapel)에서 처음 시작되어 10년 주기로 열리다가 1951년부터 5년마다 모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휴스턴 대회 이후 2021년 열릴 예정이었던 스웨덴 예테보리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되어 8년 만에 개최되었다. 보통 500여 명이 참석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웨슬리안 전통을 가진 80여 개의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와 평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연합감리교회(UMC)에 이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개회예배에서 광림콰이어의 특별 찬양

대회 첫날 공식적인 개회예배에 앞서 대의원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그리고 협력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핵화와 남북한 모두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후 저녁 7시, 세계감리교협의회 총무인 이반 아브라함스 감독(Ivan Abrahams)의 개회 선언에 이어, 스웨덴 감리교회 연합 찬양팀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었다. 참석한 80여 교단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소개될 때 대표단은 태극 문양 부채를 흔들며 환호했다.

스웨덴 찬양팀이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를 부르던 중 7인으로 구성된 광림콰이어가 한국어로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찬송가 8장)을 부르며 무대에 등장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제4차 KMC-UMC-WMC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공연했던 광림콰이어를 특별 게스트로 초청한 것이다. 광림교회와 콰이어에 대한 사회자의 소개 후 광림콰이어는 'One Day at a Time, Sweet Jesus'라는 곡을 영어로 찬양해 큰 감동을 전달했다.

이후 미국 마이애미 제일 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인 오드리 워런 목사(Audrey Warren)가 고린도전서 5:1, 16-21을 본문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다. 이후 광림콰이어는 다시 등단해 스웨덴 찬양팀과 함께 'This is My Story'(이것이 나의 간증이야)를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했다. 예배 후 이반

아브라함 감독은 초청에 응해준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와 멀리까지 찾아와 예배를 함께 준비한 광림콰이어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평화상 시상식에서의 연주

세계감리교대회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평화상 시상식이다. 대회 둘째 날인 15일 오전예배 후 1,000여 석의 공연장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Jimmy Carter),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대통령(Nelson Mandela) 등이 역대 수상자다. 이번 대회에는 두 명이 수상했는데,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발생한 난민을 돌보며 평화를 위해 헌신한 UMC 노르딕 발틱 연회의 크리스천 알스테드 감독(Christian Alsted)이 수상했다.

알스테드 감독은 광림교회가 봉헌한 발틱미션센터(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운영 중인 발틱감리교신학교의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이어 필리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서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공로로 필리핀 감리교회의 여성 지도자인 노마 돌라가(Norma Dollaga)여사가 수상했다.

시상식의 격조를 높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광림콰이어의 단원으로 함께 동행한 지에리 권사와 김보리 성도의 공연이었다. 지에리 권사는 가야금으로 'Amazing Grace'를 연주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익숙한 곡이지만 동양적인 선율과 환상적인 연주에 금세 빠져들었다. 이어 김보리 성도는 박종례 성도(갈릴리성가대 반주자)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생활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찬송가 412장)를 연주했다.

다시 한번 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감동의 순간이었으며, 연주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상식 후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연주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 평화의 밤

15일 저녁,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은 미국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GBGM), 그리고 세계감리교협의회와 함께 한국 평화의 밤을 준비했다. 한국 청년대표단은 평화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했다. 박종천 회장(세계감리교협의회)의 설교 후 한국, 미국,

팔레스타인에서 온 세 명의 청년들이 평화에 대한 간증을 했으며, 이후 정희수 감독의 통성기도 인도와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축도가 있었다.

2부 순서로 광림콰이어가 준비한 평화음악회가 이어졌다. 지에리 권사의 가야금 연주, 세곡의 중창은 연주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받으며 감동을 선사했다.

주최 측은 100명 정도 참석을 예상했지만, 전날 개회예배 특송을 듣고 300여 명이 찾아와 자리를 가득 채웠으며, 광림교회와 자매 교회인 영국 웨슬리채플의 전 담임목사이자 영국 상원의원인 레슬리 그리피스 목사(Leslie Griffiths)와 현 담임목사인 제니퍼 스미스 목사(Jennifer Smith)가 참석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 광림콰이어는 마지막으로 김보리 성도의 생활 연주와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한복을 입고 참석한 정희수 감독은 귀한 공연을 준비해준 광림교회와 콰이어에 한국인으로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철 감독회장과 박종천 회장도 한국 교회의 위상을 높여준 광림교회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세계감리교대회에 광림콰이어는 김은정 집사, 박수현 성도, 이정진 집사, 이선영 권사, 이지혜 성도, 임혜민 집사, 한명성 권사이며, 박종례 성도(피아노), 김보리 성도(생활), 지에리 권사(가야금)가 함께 했다.

✚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청장년부 아칭캠프
8월 31일(토) ~ 9월 1일(주일)까지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광림S.E.C(평생교육대학원) 개강
9월 5일 ~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사회봉사관 5층에서 진행됩니다.



English Bible Academy 개강
9월 1일 ~ 11월 17일까지 매주일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
9월 7일(토) 오전 10시, 감람동산에서 합동추모예배를 드립니다.

담임목사 동정



8/25 성경학교 보고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의료선교위원회

<Miracle> 십자가의 위로를 전하다

박정 권사, 작품 기증하며 의료선교 동참



Miracle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4년, 145.5 x 112.1cm

적으로 붉은색 십자가로 한 번, 노란색으로 5번에 걸친 반복과 그 위에 입체적인 십자가를 3번 올렸다.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무리한 이번 작품은 제 스스로 치유의 과정이었다.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매년 국내외 의료선교를 하는 회원들에게 저의 작품을 통해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했다.

'Miracle'은 의료선교위원회(위원장 정하원 장로)의뢰로 제작된 작품으로 8월 18일(주일), 3부 예배 후 원본 작품 기증식을 가졌다. 의료선교회 회원들과 작가 박정 권사 내외, 성도들이 참석한 기증식에서 조성한 목사(목회행정기획실)는 "어려운 신체적 조건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박정 권사의 작품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고, 십자가 기적의 은혜가 의료선교회 헌신 속에 나타나길 기도한다"며 축복했다.

작품 위치는 본당 로비에서 지하 1층 베데스다홀(구 양의문)로 내려가는 계단 벽면에 설치되어 의료선교회를 드나드는 광림의 성도들에게 큰 치유의 역사와 십자가의 위로를 전하고 있다.

의료선교회 정하원 장로는 "이번 작품은 의료선교회가 베데스다홀에 부착할 그림을 의뢰하며 시작됐습니다. 박정 권사님의 온전한 헌신으로 완성된 작품 'Miracle'을 많은 성도님들과 나누자는 뜻으로 의료선교회로 향하는 계단 벽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선교회는 작품을 기증받으며 더 큰 책임감과 헌신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 박정 권사님이 10월에 예정된 멕시코 유카탄

한인 의료선교 후원금을 기부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박정 권사는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口筆)화가이다. 기증식을 한 8월 18일(주일)은 33년 전 사고가 나던 그날과 같은 날짜라며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본당 로비 '웃으시는 예수님'과 교회 각 기관들에도 다수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이상희 기자



"한 획 한 획 반복되는 십자가는 우리들입니다. 고통, 아픔, 억압, 욕심, 교만, 넘어짐, 내려놓음... 우리들의 작은 드림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으로 영광이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의료선교위원회에 기증된 'Miracle'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닮아 헌신하는 의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제작된 작품이다. 작가 박정 권사(28교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린 작품이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붉은색 십자가를 바탕으로 시작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 수만 번의 노란색 십자가로 마무리했다. 전체

광림남교회

새하늘성가대의 특별한 헌신예배



광림남교회 새하늘성가대와 오케스트라는 코로나의 긴 시간을 지나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새하늘성가대의 이름처럼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주일 저녁예배를 성가대 헌신예배로 올려드렸으며 참여한 모든 성가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리고 온 성도들

이 함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헌신예배는 코로나 이후 긴 침체에서 벗어나 더욱 많은 성도들이 저녁예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하늘 성가대원들과 새하늘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더욱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다.

주일 저녁예배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은혜가 넘치는 저녁예배!' '감동이 가득한 저녁예배!' '오고 싶은 저녁예배!'를 목표로 타성에 젖은 헌신예배에서 탈피하고, 각각 주신 달란트대로 다양한 기획과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저녁예배를 준비했다. 그럼으로써 다른 부서와 기관들도 함께 저녁예배의 활성화와 참된 내적·외적 부흥을 꿈꾸는 광림남교회로 그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새하늘성가대 헌신예배는 송양근 목사의 인도로 청년부 여디디아찬양단과 함께하

는 뜨거운 은혜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다. 최규현 권사(새하늘성가대장)의 대표기도,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성가곡(1.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2.내 평생 가는 길 3.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4.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은 양태갑 집사의 지휘와 이자현 성도의 반주로 은혜롭게 올려졌다.

이어진 선영진 목사의 '하나님의 기대'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믿음, 중보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진정한 영적 리더로서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며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번 새하늘성가대의 헌신예배를 첫 시작으로 광림남교회 저녁예배의 특별하고 새로운 부흥을 기대해 본다.

양태갑 집사(새하늘성가대 지휘자)

청년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2024년 해외단기선교>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서 예수님의 사랑 전해

LFC 청년선교국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3개국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였다. 지난 7월에 1차로 태국을 다녀왔으며 8월에 2차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다녀왔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300명의 청년이 순종하였고 39명은 가는 선교사로 261명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올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필리핀 발렌달락 미션교회 봉헌(63번째 교회)

지난 8월 8일(목) 인천국제공항에서 클락공항으로 출발한 필리핀 단기선교팀은 아이타 민족과 필리피노 민족을 위해 세워진 8개의 현지 교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선교에서는 해외 100교회 건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3번째 발렌달락 미션교회 봉헌예배가 진행되었다. 지난 1년 동안 광림교회 청년들은 각자의 오병이어를 모아 2,500

만 원의 기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교회와 사택을 건축하여 봉헌하였다. 필리핀 지역의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 지역교회 성도들과 필리핀 단기선교팀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후 선교팀은 산속에 살면서 구황작물만 먹는 아이타 성도들과 결식아동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또한 8개 교회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오카리나, 음악 즐넝기, 위십, 기타, 드로잉 등의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 각자의 은사를 개발하고, 각자가 섬기는 교회의 봉사자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했다. 이와 함께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전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베트남

베트남 선교팀은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호찌민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베트남 광림미션센터와 협력하여 성경학교와 아카데미 사역을 진행하였다.

먼저 현지 교회를 방문해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호찌민에서 차로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한 폭당 보육원을 방문하였다. 이 보육원은 열악한 시설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광림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건물이 보수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선교팀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고, 레크리에이션, 페이스 페인팅, 미니 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보육원 사역 후에는 베트남 광림미션센터에서 다양한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센터의 학생

들과 지역 교민 자녀 약 140명의 아이들을 섬겼으며 이어진 성경학교에서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경험했다.

2024년 3개국에 단기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돌린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2025년에도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기 위해 기도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 한다.

또한 김정석 담임목사께서 선포해 주신 비전에 따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국 감리교회 청년공동체를 대표하여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발렌달락 미션교회 내부



발렌달락 미션교회 외부



필리핀



발렌달락 미션교회 봉헌예배



페이스 페인팅



베트남



은혜 가운데 마무리된 2024년 여름성경학교

<광림광야학교> 빠른 길보단 바른 길로!

2024년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는 지난 7월 12일 ~ 8월 4일까지 부서별로 광림교회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2024 여름성경학교는 <광림광야학교>로 명명하고 '빠른 길보단 바른 길로!'(출 14:13)를 주제로 삼았으며 교사와 학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 부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광야학교에 참석한 아이들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홍해를 건너 가나안 입성까지의 과정을 말씀과 공과, 여러 활동을 통해 배우고 체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이번 광야학교를 통해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더디더라도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교회학교의 모든 부서(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영어에배부, 어와나)의 여름성경학교는 교사와 교역자, 학부모와 성도들의 기도로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마쳤으며, 8월 25일(주일) 저녁예배에서 교회학교 주관으로 성경학교 보고예배를 드린다.

박희윤 기자



목회현장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한 은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벧전 5:4)

올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다분히

날씨가 더워서가 아니라, 전교인 여름수련회로 은혜받고 기도할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호렷산에서 발원한 기도의 물결이 여름수련회까지 이어져, 같은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헌신적인 성도님들뿐 아니라 현재 출석이 어렵고, 과거의 열심을 내기 힘든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찾아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드릴 때면, 광림교회에서 받은 은혜, 목놓아 부르짖던 그 때가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회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권면 드리

고, 삶의 위로를 선물하며 돌아올 때, 아끼던 귀한 음료를 내어 주시며, 다시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인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목회현장과 수련회를 통해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영혼의 만족만큼,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선물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쏟아내는 눈물과 그 통한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하시

며, 희망으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영화가 아니라, 하늘 영광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영광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영광을 덧입는 자리이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듣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남2선교구는 하반기에 이 영광을 수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광림남교회, 오고 가는 시간마저도 은혜로운 광림남교회, 새로운 활기로 즐거운 선교구, 은빛 인생 금빛 면류관을 바라며 하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남2선교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송양근 목사(광림남교회 2선교구)

봉사는 신앙생활의 거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

동시통역위원회 - 박찬규 팀장



1988년에 시작된 광림 동시통역위원회는 세계 각지에서 광림교회를 찾는 성도들과 해외 곳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동시통역을 지원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영어·일어·러시아어·불어 등의 언어를 동시통역하고, 현장 예배를 안내하는 인원까지 총 20여 명의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인도하심으로 2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동시통역위원회의 박찬규 팀장.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박찬규 팀장을 만나보았다.

동시통역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2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당시 갈릴리성가대에서 봉사하시던 어머니의 권유로 동시통역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3년째입니다. 통역 봉사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유학 시절 여러 차례 통역 경험이 있어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어요.

동시통역 봉사의 길을 가며 하나님은 어떤 예비하심으로 함께하셨는지요?

오늘날 이 통역 봉사를 하기까지 뒤돌아보면 제 삶을 관통하며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스스로 성경을 읽은 적이 없이 유학길에 오른 저의 손에 'NASB 본 한영 성경'을 쥐어 주셨고, 놀랍게도 미국에 도착한 바로 첫 주 금요일 현지 미국인 성경 공

부 모임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교회와 한인교회에서 모두 봉사하며 현재 통역 봉사의 초석을 다지는 다양한 문화적·언어적·신앙적 경험을 하게 되었죠. 언어적 재능을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수의 글쓰기 대회에 나가 수상의 영광을 얻은 것도, 학창 시절 이상하게도 영어만큼은 전국 상위권 수준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세계 유수의 많은 곳을 다니며 통역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시통역 봉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는?

동시통역은 신앙인으로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아보게 하는 봉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통역을 들어보며 얼마나 부족한지, 미리 와서 준비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아 철저하게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통역을 위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음미하고 고찰하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에 숨겨진 보화를 깨닫게 될 때의 기쁨 또한 충만한 은혜입니다.

동시통역 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순차통역이 아닌 동시통역이다 보니 목사님께서 가끔 사투리를 사용하신 다거나 한국 속담 인용, 한자성어, 또는 한국식 농담을 영어식으로 풀어야 할 때 언어 이상 발생하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설교와는 또 다른 영역

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단시간에 그때에 맞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통역 역시 그에 맞는 통역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매번 마치고 나면 저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동시통역 봉사를 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동시통역사와 같이 전문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좋고, 저처럼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 경험이 있거나 영어를 기반으로 한 업무 경험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삶으로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과 믿음인 것 같습니다. 조건이나 재능이 없으면 쉽지 않은 봉사이지만, 지난 수년간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제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소망과 비전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방송으로 광림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녹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특정 국가에 직접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못하더라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CNN·BBC 수준의 통역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51-1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 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1-13)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다. 고난과 위험이 따른 선교 여행이었지만,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머물며 기독교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갈라디아와 브루기아로 떠났다.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곳의 기독교인들을 권면(勸勉)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 주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해박한 성경 지식과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 전하는 내용은 정확했지만, 그 가르침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뒤에 오실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여러 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하자 열두 명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더욱 부흥하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을 드나들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리며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 두란노에 학교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강론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왔다. 몇 년 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또 그들이 구원받은 새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온 교인이 가져온 소식은 바울을 침통하게 하였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이 격해지고, 도덕이 무너졌으며, 성도들끼리 범정에 소송을 걸어 시비를 가리고 있었다.

바울은 고심 끝에 그를 찾아온 교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편지를 써 주겠습니다. 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하여 모두 돌려 읽고, 모두



편지의 내용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곳 에베소 교회의 일을 마무리 짓고 서둘러서 고린도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쓰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목회자 대응(對應,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취하는 태도나 행동)의 본보기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고 하면서 제각기 편을 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그제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이 내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전 1:11-13)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며,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원인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만일 누군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3:16-17)

또한, 사도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혼란한 사태를 일으켰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성령 안에 임재하는 하나

▲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_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존 해밀턴 모티머의 작품.

님은 끊임없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전 6:9-11) - 현대어성경

*문의 : 빛의 숲 서점(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광림 뉴스레터

